

## C-20. 전신질환이 있는 환자에서의 비외과적 치주치료

박세호\*, 한지영

한양대학교 병원 치과 치주과

### 연구배경

노령인구의 증가에 따라 전신질환을 가진 치주환자가 증가하게 되었다. 전신질환이 있는 환자에서 치주치료를 시행할 때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당뇨병이나 면역억제제를 복용하고 있는 환자에서 치주치료를 하게 될 경우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당뇨는 1형과 2형으로 나뉘는데 두 경우 모두 치주질환이 없는 환자 보다 세균에 의한 인슐린 내성이 증가하여 혈당조절이 잘 되지 않는다는 보고가 있었다. 당뇨 환자에서 치주치료를 시행하기 전에 혈당 조절을 미리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며, 치주치료를 시행할 때 구강위생교육, 국소적 자극 요인의 제거, 유지관리 치료도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장기 이식을 받은 환자의 경우 면역억제제를 투여하게 된다. Cyclosporine A는 강력한 면역억제제로 장기이식의 거부반응을 방지하고 자가면역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쓰인다. Cyclosporine A 500mg/day 이상을 투여하는 경우 치은의 과성장이 일어난다고 보고되어 왔다. 치은비대 정도는 치주질환보다는 cyclosporine A의 혈장농도와 더 관련이 있다고 한다.

이번 연구에서는 당뇨로 진단된 적이 없었던 환자에서 구강내 증상을 통해 전신질환이 의심되어 임상화학적 검사를 통해 당뇨와 기타질환을 진단하고 당뇨 치료와 치주치료를 함께 시행하였고, 신장이식을 받은 환자에서 비외과적으로 치주치료를 시행하였다.

### 연구방법 및 재료

치은 출혈과 치은비대를 주소로 내원한 71세 남성환자를 내과에 의뢰하여 임상화학적 검사를 시행한 결과 당뇨로 진단되었다. 당뇨 치료와 함께 구강청결교육, 치석제거술 및 치근활택술, 유지치료를 시행하였고 부가적인 항생제 처방은 하지 않았다.

10년 전에 신장이식을 받아 면역억제제인 cyclosporine A를 복용하고 있는 37세 여성환자가 치은비대증을 주소로 내원하여 구강청결교육, 치석제거술 및 치근활택술, 유지치료를 시행하였다.

### 연구결과

두 증례 모두에서 술 전의 치은 부종, 치은 출혈, 치은 탐침 깊이, 치은 비대 소견이 술 후에 감소된 것을 관찰 할 수 있었다. 첫 번째 증례는 치료 일년 후 까지 안정된 치주 상태를 보이고 있고 혈압 및 당 수치도 안정되게 유지되고 있다.

## 결론

비외과적 치주치료를 통해 당뇨환자와 면역억제제 투여환자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전신질환이 있는 환자는 정상인에 비해서 염증에 대한 면역기능이 감소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구강청결교육 및 지속적인 유지치료가 필요할 것이라고 사료된다.